

도시민의 농촌성 인지 유형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 민 수* 박 덕 병**

Keywords

농촌성(rurality), 유형화(typology)

Abstract

The perception of rurality has been important because the perceptions that urban people have of rurality were likely to influence both public and private policies directed to rural area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gment and profile the urban residents' perceptions of rurality so as to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urban residents' rurality in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nationwide telephone survey with 1,000 urban residents in seven large cities. Four distinct segment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rurality; anti-rurality (19.9%), positive rurality (19.6%), passive rurality (36.1%), critical rurality (24.4%), and these were profiled with respect to socio-demographics.

차례

- | | |
|-----------|---------|
| 1. 서론 | 4. 연구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
| 3. 연구방법 | |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박사후연구원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연구사

1. 서론

지금까지 농촌에 대한 표상(representations)과 인지(perception)는 농촌성(rurality)이라는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다. 농촌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할 것인가는 사회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으며, 또한 철학적으로도 많은 논쟁이 되어온 주제이다. 오랫동안 농촌사회학자들(Bealer, Willits, & Kuvlesky, 1965; Cloke & Little, 1997; Falk & Gilbert, 1985; Friedland, 1982, 2002; Haartsen, Groote, & Huigen, 2003; Milbourne, 1997; Newby, 1980; Willits, Bealer, & Timbers, 1990; Willits & Luloff, 1995)은 농촌성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탐구해 왔지만, 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농촌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정의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까지 ‘농촌성’(rurality)의 개념은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실체인 ‘농촌’(rural)이라는 개념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농촌성에 대한 담론은 농촌성이 물리적인 실체라기보다는 개인들이 농촌에 대해 인식하는 주관적인 것으로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표상이나 인지, 즉 농촌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도시화와 더불어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살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대한 표상은 국가발전의 우선순위 결정이나 정책형성 및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Willits, Bealer, & Timbers, 1990; Willits & Luloff, 1995). 둘째,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을 가진 도시민이 이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농촌의 표상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Willits, Bealer, & Timbers, 1990; Willits & Luloff, 1995). 셋째, 최근 농촌개발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는 농촌관광 마케팅에 농촌 표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농촌관광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의 장소마케팅에 농촌 표상은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며(Boyne, Hall, & Gallagher, 2000; Boyne, Williams, & Hall, 2003; Kneafsey, 1998), 농촌관광 사업자들은 상업적 목적에서 농촌의 향수나 전통적인 농촌표상(rural representations)을 형성하여 지역을 이미지화시켜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Greffé, 1994; Page & Getz, 1997; Sharpley & Sharpley, 1997).

이처럼 도시민의 농촌성은 농촌정책과 농촌개발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촌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이론적인 면에 치우쳐 있었으며,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할 만한 경험적 연구는 미미하였다. 즉 실제 도시민들이 농촌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농촌을 어느 정도 개발하거나 또는 보전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도시민의 농촌성은 농촌개발과 농

촌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고 논의되어 왔지만, 도시민의 농촌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용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는 목적은 도시민의 농촌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인 정책접근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도시민의 농촌성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농촌성에 대한 담론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농촌성을 ‘개인이 농촌에 대해 주관적인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농촌성에 대한 기존의 경험적인 선행연구들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농촌성 측정방법과 자료수집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요약하였다. 4장에서는 첫째 도시민의 농촌성 차원을 규명하고, 둘째, 농촌성 차원에 기초한 군집분석을 통하여 도시민을 유형화하고, 셋째 각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를 규명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시민의 농촌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세계화된 경제체제 하에서 소위 말하는 후기생산주의적인(post-productivism) 패러다임의 도래와 함께 농업, 농촌은 농업생산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전원생활이나 여가공간으로서의 기능에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이 EU 국가를 위시한 여러 선진국들의 현실이다. 후기 생산주의 패러다임은 이전과 달리 ‘농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뿐만 아니라 농촌성을 구성하는 것의 의미에서 이전과 다른 차이가 나고 있다. 즉 이전과 달리 어떻게 농촌이 상상되고 있으며 생산되고 있는가 혹은 농촌이 어떻게 표상되며 개념화되는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Cloke & Little, 1997; Ray, 1998).

2.1. 농촌성에 대한 담론

농촌성(rurality)은 농촌 사회학자들의 중심적인 연구 주제 중의 하나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이 농촌성에 대한 개념은 ‘농촌’, ‘농촌다움’, ‘시골다움’, ‘농촌의 표상’ 등으로 학자에 따라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다(Halfacree, 1993, 1995). 할페크레(Halfacree, 1993, 1995)는 농촌성에 대한 논의를 학문적인 영역과 일상적인 담론으로

구분하였으며, 존스(Jones, 1995)는 농촌성의 담론을 전문가들의 담론, 일상적인 사람들의 담론, 중재적인 담론, 인지적인 담론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존스(Jones, 1995)는 학문적이고 전문가적인 담론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표상되는 있는 농촌이고,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담론은 예술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 문화·사회적 구조 안에서 발견되는 농촌에 대한 표상으로 규정하였다.

클로우크와 밀보른(Cloke & Milbourne, 1992)과 프랫(Pratt, 1996)은 농촌성의 접근방법을 기능주의적이고 경험적주의적인 접근방법, 정치경제적인 접근방법, 후기구조주의적인 접근방법, 포스트모던적인 접근방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기능주의적이고 경험주의적 접근방법은 부정적인 개념으로서는 비도시적인 특징으로 농촌성을 묘사한 반면, 긍정적인 개념으로서는 농촌공간을 특징짓는 특별한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농촌성을 설명하였다. 그래서 이 접근방법에서는 농촌성보다는 농촌이란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농촌(rural)이 실제의 객관적인 대상을 묘사하거나 농촌의 풍경이나 사회경제적 사실을 표상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접근법에서는 농촌 혹은 농촌성이라는 개념은 도시와는 다른 농촌의 사회경제적 실제들을 구분하고 설명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접근방법은 주로 농촌의 사회경제적 복지지표와 같은 ‘측정 가능한’ 지표에 초점을 두었다(Cloke, 1987).

둘째,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이다. 팔(Pahl, 1966)은 농촌과 도시의 연속성 개념을 비판하였으며, 뉴비(Newby, 1980, 1986)는 농촌의 지역성을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는 기능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오던 농촌사회를 국내외의 정치경제학적인 역동성과 결합하여 설명한다. 그래서 농촌사회의 변화 원인은 항상 농촌 지역 외부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농촌주민들이 직면하는 주택문제, 직업문제, 서비스문제 등은 농촌성, 즉 농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기보다는 농촌외부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후기 구조주의적 입장으로 앞의 두 가지 접근방법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몰몬트(Mormont, 1987)는 농촌의 공간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가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농촌성의 개념 또한 변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농촌지역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경제활동의 탈지역성이 증가되어 경제적으로 동질한 지역화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클로우크(Cloke, 1992)는 보들리אר(Baudrillard, 1983)의 논의를 받아들여, 농촌성의 개념은 실제 농촌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광이나 휴양지, 공원개발과 같은 농촌공간의 이용은 새롭고 특수한 연결망을 형성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촌 공간은 더 이상 농촌으로서의 지역적 의미를 상실하고, 농촌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방문하여 머무는 많은 사람들

로 구성된다. 또한 농촌공간이 비농촌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농촌지역에서는 농촌주민들과 달리 각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몰몬트(Mormont, 1987)는 농촌성이 단순한 농촌공간보다는 복합적으로 중첩된 사회공간으로서 표상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경우 농촌성은 사회문화적인 가치가 결부된 사회적인 공간과 관련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몰몬트(Mormont, 1987) 농촌성의 개념은 농촌정책, 실제 농촌, 그리고 학문적 담론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넷째,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방법이다. 이 접근방법은 후기 구조주의적 입장과 유사한 접근방법이다. 프랫(Pratt, 1996)은 후기 구조주의적 입장과 포스트모더니즘적 입장을 결합하여 농촌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할페크레(Halfacree, 1993)는 보드리아르(Baudrillard, 1983)의 포스트모던의 관점을 받아들여 농촌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농촌이라는 사회적 의미가 다양화되는 것처럼 농촌성이라는 기호(sign)는 그 의미(signification)와 분리될 것이며, 이에 따라 기호(sign)와 의미(signification)는 농촌지역이 가지는 레퍼런트(referent)와 점점 멀어져 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클로우크(Cloke, 1992)는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농촌이라는 상징(symbol)은 그 농촌이 가지는 레퍼런트와의 차이나 불일치가 증가하고, 농촌이라는 사회공간은 농촌의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공간과도 그 차이나 불일치가 증가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 농촌성에 대한 담론분석에서 사회구성주의적(social constructionism)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Richardson, 2000). 이 접근법에서는 거대한 범주로서의 농촌 대신 농촌성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담론과 표상들을 탐구한다. 이러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은 기존에 농촌성을 개념적이고 묘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공간 결정론적 또는 지역 중심적으로 접근하였던 방법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즉 이것은 농촌성은 상징적이면서 항상 변화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속스미스(Shucksmith, 1994)는 농촌성이 사회적인 투쟁의 한 영역이며, 경쟁적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구성주의자들은 ‘누가 농촌에 있는가?’에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농촌을 느끼는가?’에 의문을 갖는다(Mormont, 1987).

이처럼 기존의 농촌성에 대한 담론은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농촌성에 대한 담론은 농촌이라는 것이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실체로서 접근되기 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관적이고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몰몬트(Mormont, 1990)와 할페크레(Halfacree, 1993)는 농촌성은 어떤 물리적이고 만질 수 있는 대상물이라기보다는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농촌성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토대로 농촌성을 ‘물리적인 객관적 실체가 아닌 개인이 농촌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와 함께 프렛(Pratt, 1996)의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농촌성은 농촌이라는 개념과는 달리 타 지역과 비교가 가능하고, 농촌성지수(index of rurality) 등을 통해 측정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정의할 경우 농촌성은 개인 수준에서 측정 가능한 것으로 경험적 연구가 용이해진다.

2.2. 선행연구 고찰

그동안 농촌성에 대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농촌성 인지 차이를 밝히려는 연구와 대중매체에 의하여 농촌성이 상징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조작되는지에 대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농촌성 인지차이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일반 국민, 특히 도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즉 연령이나 계층 간에 농촌의 표상에 대한 차이에 주목한 연구이다(김동원 & 박혜진, 2007; 김종숙 & 민상기, 1994; 박대식 & 김정호, 1999; 오세익, 김동원, & 박혜진, 2004; Haartsen, Groote, & Huigen, 2003; Halfacree, 1995; Willits, Bealer, & Timbers, 1990; Willits & Luloff, 1995). 이외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농촌성 차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가지는 농촌성에 대한 표상 연구(Beus & Dunlap, 1994; Dalecki & Coughenour, 1992; Matthews, Taylor, Sherwood, Tucker, & Melanie, 2000; McCormack, 2002; Robertson, 2000), 노인들이 농촌성에 대하여 느끼는 표상에 대한 연구(Cloke & Little, 1997) 등이 있다.

대중매체 의하여 농촌성이 어떻게 상징되고 조작되는지에 대한 연구로는 할페크레(Halfacree, 1993), 존스(Jones, 1995), 그리고 필립스 외(Phillips, Fish, & Agg, 2001) 등의 연구가 있다.

농촌성의 주요 연구대상이 도시민인 기존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농촌성에 대한 연구는 농촌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기보다는 주로 ‘농업 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김동원 & 박혜진, 2007; 김종숙 & 민상기, 1994; 박대식 & 김정호, 1999; 오세익, 김동원, & 박혜진, 2004). 국내 연구는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이나 수입개방,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한 농업의 역할 재조정 문제 등에 관심을 두고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에서 도시민이 농촌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 즉 농촌성은 연구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졌다. 이에 따라 이들 연구는 농촌성에 대한 논의나 농촌

성에 대한 포괄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들 연구는 농촌성 차원을 규명하는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촌성 차원에 대한 고려 없이 사전에 농촌성 차원이 규정되었다. 예를 들면 박대식·김정호(1999)의 경우, 농업·농촌에 대한 이미지를 측정할 항목으로는 두 가지 차원(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정도, 농본주의 인식)이 있다. 이 중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정도의 경우에는 리커트 척도를 이용해 단일 문항으로 설정하였으며, 농본주의 인식은 6개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이 연구는 농촌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농촌성 차원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농촌성에 대한 측정도 관심있는 항목 위주로 이루어졌다. 오세익·김동원·박혜진(2004)의 경우에는 농촌성의 영역을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농촌성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유형화하지 않고 연구자의 사전

표 1. 농촌성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농촌성 영역	농촌성 차원 구분방법	분석방법	농촌성 영향 변인
김종숙·민상기 (1994)	농업의 중요도, 직업으로서의 매력, 농민에 대한 인식	사전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농촌성 차이 비교 (빈도, 교차분석)	학력
박대식·김정호 (1999)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도, 농본주의 인식	사전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농촌성 차이 비교 (빈도, 교차분석)	거주지역성, 연령, 농촌 거주경험
오세익·김동원·박혜진 (2004)	농업·농촌의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사전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농촌성 차이 비교 (빈도, 교차분석)	연령, 성, 학력
김동원·박혜진 (2007)	농업의 중요성, 농업·농촌이미지	사전적	도시민과 농업인의 농촌성 차이 비교 (빈도, 교차분석)	-
Haartsen, Groote & Huigen (2003)	시각적 이미지(visual-figurative image), 사회문화적 이미지(socio-cultural image), 사회경제적인 기능적 이미지(socio-economic functional image)	사전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농촌성 차이 비교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연령, 농촌거주 경험, 성
Willits, Bealer, & Timbers (1990)	긍정적 이미지(positive images), 부정적 이미지(negative image), 반도시주의(anti-urbanism), 농업가치 중시(agrarian values), 야생가치 중시(wilderness values)	사후적(요인분석)	도시민, 농촌주민, 교외거주자간의 농촌성 차이 비교 (교차분석)	성, 연령, 교육, 소득, 거주지역 인구수
Willits & Luloff (1995)	선호적인 이미지(favorable image), 비선호적인 이미지(unfavorable image), 농촌경관보전(rural landscape preservation)	사후적(요인분석)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농촌성 차이 비교 (회귀분석)	성, 연령, 교육, 소득, 농촌접촉 경험

구분에 의한 것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이와 함께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 측정 문항이 단일 문항의 선택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연속형 척도에 비해 빈도분석 외의 추가적인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국내의 경우는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 즉 농촌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핫센, 그루트와 헤이젠(Haartsen, Groote, & Huigen, 2003)의 경우는 농촌성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촌성의 차원을 사전에 3개(시각적 이미지, 사회문화적 이미지, 사회경제적인 기능적 이미지)로 구분하였으며,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떤 이미지를 중시하는 지를 다중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규명하였다. 윌리츠, 빌러와 톰버스(Willits, Bealer, & Timbers, 1990)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성에 대한 35개의 리커트 척도를 개발하여 최초로 농촌성에 대한 차원을 규명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농촌성 차원을 긍정적, 부정적, 반도시주의, 농업의 가치, 야생의 가치로 구분하였다. 이후 도시민, 농촌주민, 교외거주자 간에 5개 차원에서 농촌성이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규명하였다. 윌리츠와 룰로프(Willits & Luloff, 1995)는 펜실베이니아 주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3개의 리커트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하여 농촌성을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농촌경관 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이미지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이 후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각 차원의 농촌성이 차이가 있는 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이처럼 국외의 경우는 농촌성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농촌성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윌리츠, 빌러와 톰버스(Willits, Bealer, & Timbers, 1990)와 윌리츠와 룰로프(Willits & Luloff, 1995)의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농촌성 차원을 규명하였다는 측면에서 농촌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한 차원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개인이 가지는 복합적인 농촌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 개인의 농촌성은 한 차원의 농촌성이 결정되면 나머지 차원의 농촌성이 결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긍정적 이미지가 높은 개인의 경우, 보전적 이미지가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다. 즉, 개인들은 농촌성 차원을 기준으로 긍정적 이미지와 보전적 이미지가 높은 집단과 긍정적 이미지는 높고, 보전적 이미지는 낮은 집단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윌리츠, 빌러와 톰버스(Willits, Bealer, & Timbers, 1990)와 윌리츠와 룰로프(Willits & Luloff, 1995)의 연구는 개별적인 농촌성 차원만을 고려하여 교차분석 혹은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복합적인 개인의 농촌성 차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기존의 도시민의 농촌성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농촌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경제적 특성(성, 연령, 학력, 소득), 거주지역, 그리고 농촌접촉경험이다.

사회경제적인 위치, 인종, 성, 연령, 국적은 농촌의 표상에 영향을 준다(Cloke & Little, 1997; Milbourne, 1997). 대부분의 연구는 계급이나 계층 간 농촌 표상의 차이에 주목하였다(Halfacree, 1995). 연령은 농촌의 표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인들이 가지는 농촌의 표상에 관한 연구(Cloke & Little, 1997; Marsden, Murdoch, Lowe, Munton, & Flynn, 1993) 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 비율의 증가가 정치적인 힘으로 나타나 정책결정기관에 압력이 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거주지역도 농촌성 인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슨(Larson, 1978)과 윌리츠, 로버트와 크리드(Willits, Robert, & Crider, 1982)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나 도시근교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촌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성은 도시민이 농촌지역을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개인적인 경험을 할 때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Willits & Luloff, 1995; Willits, Robert, & Tombers, 1992). 농촌이 고향이거나 농촌에 거주한 경험, 농촌지역에 사는 친척이나 친구들과의 사회적 접촉, 관광이나 휴식을 위해 농촌을 방문하는 정도 등과 같은 농촌접촉경험이 농촌성에 영향을 미친다. 윌리츠와 룰로프(Willits & Luloff, 1995)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민의 경우 농촌지역에 자주 방문할수록 농촌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을 방문하는 도시민들이 보다 더 환경친화적이며 여가를 많이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농촌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이 연구에서도 농촌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는 사회경제적 특성과 농촌접촉경험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국내 연구가 농촌성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Willits, Bealer, & Timbers, 1990; Willits & Luloff, 1995)를 토대로 농촌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후 농촌성 차원을 규명하였으며, 각 차원을 변인으로 한 군집분석을 통하여 도시민의 농촌성을 유형화하였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설문조사는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

상으로 이루어졌다. 표집방법은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3단 층화무작위추출”(Three-Staged 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했으며, 2004년에 발행된 전화번호부에서 일정한 표집간격에 따라 체계적으로 응답자를 선정하여 2004년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을 감안, 직장인 등이 고르게 표집될 수 있도록 매일 오후 4시에서 10시 30분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3.2. 농촌성 측정

이 연구는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하여 농촌성 항목을 개발하였다. 윌리츠, 빌러와 톰버스(Willits, Bealer, & Timbers, 1990)와 윌리츠와 룰로프(Willits & Luloff, 1995)가 사용한 농촌성 척도를 토대로 17개의 농촌성 측정 항목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측정항목은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농촌사회분야 연구자 5인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face validity) 검사를 실시하였다. 각 문항이 농촌성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인 이상에게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문항은 제거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문항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사전조사 단계에서 도시민 38명의 응답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신뢰도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4개 문항은 삭제되었으며, 5개 문항은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에는 13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포함된 13개 문항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3.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세 단계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는 농촌성의 기저에 존재하는 차원을 도출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이 사용되었다. 요인분석의 중요한 목적이 다수의 변인을 상관관계가 없는 소수의 요인으로 축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직교회전 방식의 하나인 배리맥스(varimax) 회전법을 적용하였다. 배리맥스 회전법은 요인들의 직교회전 방식의 하나로 요인들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분석방법으로 알려져 있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5).

요인분석 시 변인과 요인수의 선택에는 헤어·블랙·바빈·앤더슨·타삼(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5)에 의해 제시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다. i)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0.5이상이어야 한다. ii) 요인의 고유치(eigenvalues)는 1이상이어야 한다. iii) 요인분석 결과는 원 변량의 60% 이상을 설명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슷한 농촌성을 가진 집단을 도출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차원에 속하는 변인들의 평균값을 변인으로 하는 새로운 농촌성 차원 변인들을 생성하였다. 이 후 생성된 변인들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헤어·블랙·바빈·앤더슨·타삼(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5)이 제시한 2단계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즉, 우선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수와 초기값을 결정하고, 이 값을 토대로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을 결정하였다. 군집수의 결정은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를 이용하였다.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는 군집화 과정의 각 단계에서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기 위해 그룹화된 관측치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값이 작을수록 동질적인 관측치가 하나의 군집으로 묶여짐을 나타내며,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Bierly & Chakrabarti, 1996; 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5).

계층적 군집분석 후 비계층적 군집분석법의 하나인 K-means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K-means 분석시 초기값으로는 계층적 군집분석에서 획득한 군집평균값을 활용하였다. K-means는 이상치, 개체(case)간의 거리측정 방법, 부적절한 변인의 포함 등에 덜 민감한 특성을 가진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5). 군집분석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산분석, 다변량 분산분석, 판별분석을 사용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군집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행동특성 등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농촌성 요인분석

도시민의 농촌성 차원을 규명하기 위해서 13개의 농촌성 변인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에서 논의한 헤어·블랙·바빈·앤더슨·타삼(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5)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13개의 원변인 중 4개의 변인(토지 미개발은 자원낭비이다, 지역주민에게 부담되는 영농활동은 제한해야 한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스트레스가 적다, 삶의 만족을 농촌에서 찾을 수 있다)은 최종 요인 분석 모델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9개의 원변인으로 3개의 요인이 생성되었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선 요인분석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Bartlett의 구형검사(Bartlett test of sphericity)와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절성 검사(measure of sampling adequacy)를 실시하였다. Bartlett의 구형검사(Bartlett test of sphericity)는 상관계수 행렬이 영행렬(zero matrix)인지에 대한 χ^2 검정이다. 분석결과 상관계수 행렬이 영행렬이라는 가설은 1% 수준에서 기각되었다.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절성 검사(measure of sampling adequacy)도 주어진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도구로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 지수이다. 일반적으로 이 지수의 값이 0.7이상일 경우 요인분석에 적합한

표 2. 요인분석 결과

농촌성변인*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설명력)	α	평균**
요인 1: 보존적 농촌성		2.61	0.68	4.12
농촌생활방식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전해야 한다	0.687	(22.9%)		3.98
도시근교에서 일정정도 영농은 유지해야 한다	0.698			4.02
농촌의 여유로운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0.739			4.12
농촌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산이다	0.702			4.35
요인 2: 부정적 농촌성		1.90	0.60	3.08
사회의 변화에 맞춰 농촌 전통생활 방식도 변해야 한다	0.846	(21.1%)		3.47
농촌의 신념이나 가치는 오늘날 부적합하다	0.838			2.68
요인 3: 긍정적 농촌성		1.44	0.69	3.87
농촌은 다른 지역보다 범죄 탈선이 적다	0.772	(16.1%)		3.71
농촌은 평화적이고 조용하다	0.830			4.01
농촌주민은 우호적이고 친절하다	0.737			3.89
설명분산의 누적값 =60.1%, KMO = 0.71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chi^2 = 1358.8$ (d.f=36, Sig=.000)				

* 농촌성변인 중 Hair et al.(2005)의 기준에 의해 4개의 변인은 최종 요인분석에 포함되지 않음
(토지미개발은 자원낭비이다, 지역주민에게 부담되는 영농활동은 제한해야 한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스트레스가 적다, 삶의 만족을 농촌에서 찾을 수 있다)

**1=전혀그렇지않다 ~ 5=매우그렇다.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0.751로 나타나 원자료가 요인분석에 적절함을 보여준다.

3개 요인은 총 분산의 60.1%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부하량은 0.5이상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절함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총 분산의 60%를 설명하면 좋은 결과로 받아들여진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5, p. 120). 3개 요인의 Cronbach α 값은 0.6이상으로 나타나 수용할 만한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농촌생활 방식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전해야 한다’, ‘도시근교에서 일정 정도 영농은 유지해야 한다’, ‘농촌의 여유로운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농촌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산이다’ 등의 4개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변량의 22.9%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농촌보존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요인 1은 ‘보존적 농촌성’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2는 ‘사회의 변화에 맞춰 농촌 전통생활 방식도 변해야 한다’, ‘농촌의 신념이나 가치는 오늘날 부적합하다’ 등의 2개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변량의 21.1%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2는 농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련된 변인들이다. 따라서 요인 2는 ‘부정적 농촌성’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3은 ‘농촌은 다른 지역보다 범죄 타선이 적다’, ‘농촌은 평화적이고 조용하다’, ‘농촌주민은 우호적이고 친절하다’ 등 3개의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변량의 16.1%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3은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관련된 변인들이다. 따라서 요인 3은 ‘긍정적 농촌성’으로 명명되었다.

4.2. 도시민 유형화

농촌성에 따라 도시민을 유형화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의 단계별 계수 값이 크게 변하는 지점에서 군집수를 결정하여 4개의 군집으로 구분하였다. 이 후 계층적 군집분석에서 도출한 군집평균값을 초기값으로 하고, 군집수를 4개로 설정한 후 K-means를 통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군집들이 적절히 분류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MANOVA를 통해 검정한 결과, 1% 수준에서 군집들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3개의 농촌성 요인 각각이 군집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ANOVA를 통해 검정한 결과, 1% 수준에서 3개의 모든 요인이 군집들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각 군집들은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4개의 군집이 적절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3. 농촌성 군집분석 결과

	군 집 분 류				전체 평균	F-value	사후검정 (Post Hoc)
	반농촌성 지향형(I) (n=175)	적극적농촌성 지향형(II) (n=172)	소극적농촌성 지향형(III) (n=317)	비판적농촌성 지향형(IV) (n=214)			
보존적 농촌성	3.44	4.35	4.12	4.32	4.08	193.34***	I<III<IV,II
부정적 농촌성	3.46	2.04	2.78	4.01	3.07	738.85***	II<III<I<IV
긍정적 농촌성	3.42	4.27	3.66	4.15	3.85	114.58***	I<III<IV<II

Pillai's trace = 1.27(p<0.01); Wilks' Ramba =0.125(p<0.01)

Hotelling-Lawley trace=4.00(p<0.01); Roy's greatest root=3.13(p<0.01)

*** p < 0.01

군집 I은 응답자의 19.9%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존적 농촌성은 낮고, 부정적 농촌성은 높으며, 긍정적 농촌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집 I은 ‘반농촌성 지향형’으로 명명되었다. 군집 II는 응답자의 19.6%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존적 농촌성은 높고, 부정적 농촌성은 낮으며, 긍정적 농촌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집 II는 ‘적극적 농촌성 지향형’으로 명명되었다. 군집 III는 응답자의 36.1%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존적 농촌성과 긍정적 농촌성은 전체 평균과 비슷하였으며, 부정적 농촌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집 III ‘소극적 농촌성 지향형’으로 명명되었다. 군집 IV는 응답자의 24.4%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존적 농촌성과 긍정적 농촌성도 높은 반면에 부정적 농촌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집 IV는 ‘비판적 농촌성 지향형’으로 명명되었다.

군집의 구별에 3개의 농촌성 요인 중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별분석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첫 번째 판별함수에서 군집을 구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농촌성요인은 ‘부정적 농촌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농촌성’이 군집을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임을 보여준다. 두 번째 판별함수에서는 ‘보존적 농촌성’이 군집 판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군집이 적절히 분류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판별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분류정확도(classification accuracy)를 도출하였다. 판별분석 도출에 사용된 표본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모형에 사용되지 않는 자료를 적용할 경우보다 분류정확도가 높아지는 과도적합(overfitting)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헤어·블

랙 · 바빈 · 앤더선 · 타삼(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이 제시한 Leave-One-Out 교차검정(Leave-One-Out cross validation)을 실시하였다. Leave-One-Out 교차검정은 K-fold 교차검정방법의 하나로 전체 표본 중 1개의 자료만을 제외한 N-1개로 모형 구축 후 나머지 1개 표본으로 검증하는 방법이다. 분류정확도는 이와 같은 과정을 N회 시행 한 후 평균값으로 계산된다. Leave-One-Out 교차검정은 표본수가 적을 경우 가장 우수한 교차검정결과를 도출하며, 불편추정량(unbiased estimate)을 도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Kohavi, 1995; Stone, 1974; Vapnik, 1998). 판별분석 도출에 사용된 원자료의 분류정확도는 95.4%이었으며, 교차검정 자료의 분류정확도도 95.4%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차검정 분류정확도는 군집분석의 결과가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농촌성 군집의 판별분석 결과

농촌성요인	표준 정준 판별함수 계수			
	판별함수1	판별함수2	판별함수3	
보존적 농촌성	-0.324	0.730	-0.613	
부정적 농촌성	1.009	0.266	-0.028	
긍정적 농촌성	-0.394	0.504	0.817	
판별함수	Eigenvalue	정준상관계수	Wilks' Lambda	Chi-square
1	3.127	0.870	.0125	1814.796***
2	.798	0.666	.0517	576.502***
3	.076	0.266	.0929	64.059***

*** p < 0.01

4.3. 유형별 특성

4개의 군집유형은 농촌성이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 4개의 군집 유형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각각의 유형이 유사한 요구와 태도를 가져야 하며(McCarthy & Perreault, 1982),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도 각 유형은 구별되어야 한다(Weinstein, 1987). 즉 군집별로 구체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유형별로 실용적이고 유용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집 유형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4개의 유형 간에 인구사회학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χ^2 검정결과를 살펴보면(표 5), 4개의 유형 간에는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혼여부별로는, 기혼인 경우에는 ‘비판적 농촌성 지향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미혼인 경우에는 ‘적극적 농촌성 지향형’과 ‘소극적 농촌성 지향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20대는 ‘소극적 농촌성 지향형’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30대와 40대는 ‘반농촌성 지향형’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50대 이상은 ‘비판적 농촌성 지향형’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군집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반농촌성 지향형(I) (n=175)	적극적농촌성 지향형(II) (n=172)	소극적농촌성 지향형(III) (n=317)	비판적농촌성 지향형(IV) (n=214)	전체 (N=878)
결혼여부	기혼	70.3	68.0	64.6	79.7	70.1
	($\chi^2=14.16***$) 미혼	29.7	32.0	35.4	20.3	29.9
연령	20대	23.4	29.1	33.4	17.3	26.7
	($\chi^2=20.57***$) 3-40대	50.9	44.2	41.0	48.6	45.4
	50대이상	25.7	26.7	25.6	34.1	27.9
직업	자영업	13.4	14.8	9.4	17.1	13.1
	($\chi^2=25.95**$) 블루칼라	4.7	8.3	6.5	10.0	7.3
	화이트칼라	30.2	21.3	24.3	20.9	24.0
	주부	23.8	24.9	27.5	26.1	25.9
	학생	14.0	18.3	20.7	10.4	16.4
	무직	14.0	12.4	11.7	15.6	13.2
소득	2000만원 이하	19.3	14.2	22.7	32.2	22.8
	($\chi^2=20.29***$) ~4000만원	51.0	50.7	48.4	48.6	49.4
	4000만원 이상	29.7	35.1	28.9	19.1	27.7
거주지	수도권	59.4	61.0	56.8	46.7	55.7
	($\chi^2=10.10**$) 비수도권	40.6	39.0	43.2	53.3	44.3
농촌거주경험	있음	60.6	64.0	56.8	74.3	63.2
	($\chi^2=17.51***$) 없음	39.4	36.0	43.2	25.7	36.8
고향	대도시	36.6	34.9	42.0	35.0	37.8
	($\chi^2=10.83*$) 중소도시	11.4	17.4	17.0	12.6	14.9
	농촌	52.0	47.7	41.0	52.3	47.3

직업별로는, 자영업/블루칼라의 경우에는 ‘비판적 농촌성 지향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화이트칼라의 경우에는 ‘반농촌성 지향형’의 비율이 높았으며, 학생의 경우는 ‘소극적 농촌성 지향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판적 농촌성 지향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극적 농촌성 지향형’의 비율이 높았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자는 ‘적극적 농촌성 지향형’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비수도권 거주자는 ‘비판적 농촌성 지향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농촌거주경험별로는, 거주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비판적 농촌성 지향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농촌 거주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소극적 농촌성 지향형’이 높았다. 태어난 고향별로는, 대도시가 고향인 경우에는 ‘소극적 농촌성 지향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농촌이 고향인 경우에는 ‘반농촌성 지향형’과 ‘비판적 농촌성 지향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요인분석 결과 도시민은 3개의 농촌성 차원을 가지고 있었다. 3개의 농촌성 차원은 ‘보존적 농촌성’, ‘부정적 농촌성’, ‘긍정적 농촌성’이다. 이 중에서 전체변량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농촌성 차원은 ‘보존적 농촌성’과 ‘부정적 농촌성’으로 전체변량의 22.9%와 21.1%를 각각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평균점수에서도 보존적 농촌성 차원이 4.12로 다른 농촌성 차원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결과는 도시민은 보존적 농촌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가지 차원의 농촌성에 대한 점수를 보면, 보존적 농촌성과 긍정적 농촌성의 점수는 매우 높는데 비해 부정적 농촌성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도시민들은 농촌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윌리츠, 빌러와 톰버스(Willits, Bealer, & Timbers, 1990)는 농촌을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정적 장소로 인식하기보다는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사회유지의 근간이 되는 긍정적인 장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런 현상을 ‘농촌에 대한 신비성’(rural mystique)으로 칭하였다. 농촌을 신비화하는 사회현상은 ‘농업중시주의’(agrarianism)를 강조한 1970년대의 사회학 연구들(Buttel & Flinn, 1975; Carlson & McLeod, 1978; Flinn & Johns, 1974)에서도 발견된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농경문화를 미국문화의 중심이며, 사회유지

의 근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도 농촌을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있는 부정적 장소라기보다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신비한 장소로 인지된다는 기존 연구결과(Willits, Bealer, & Timbers, 1990; Willits & Luloff, 1995)를 지지하고 있다.

농촌성에 따라 도시민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농촌성 차원에 기초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결과 4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4개의 군집은 ‘반농촌성 지향형’, ‘적극적 농촌성 지향형’, ‘소극적 농촌성 지향형’, ‘비판적 농촌성 지향형’이다.

‘반농촌성 지향형’과 ‘비판적 농촌성 지향형’은 모두 농촌을 고향으로 둔 경우가 많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반농촌성지향형’은 주로 3-40대의 젊은 수도권 거주 화이트칼라인데 비해, ‘비판적 농촌성 지향형’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비수도권에 거주하며, 자영업과 블루칼라 계층인 경우가 많았다. 위와 같은 사실은 농촌 현실을 잘 아는 농촌출신일수록 농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6-70년에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와 자영업자 계층에 비해 80년대 이후 대학 진학을 위해 농촌을 떠나 도시의 화이트칼라로 편입된 계층이 농촌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촌 출신이 농촌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은 이들은 도시민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농촌에 대한 신비감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이들 농촌출신은 기존의 농촌생활경험과 농촌지역에 있는 친척 등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농촌이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윌리츠와 룰로프(Willits & Luloff, 1995)의 연구결과를 볼 때, 일반적으로 단순히 휴식과 경관을 즐기기 위해 농촌을 방문하는 도시민에 비해 농촌방문을 통해 농촌주민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도시민은 농촌의 경제개발을 지지하고, 농촌주민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를 볼 때, 이들 ‘반농촌성 지향형’과 ‘비판적 농촌성 지향형’ 도시민의 경우 농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거나 긍정적으로 변화되면, 향후 농촌개발과 농촌주민의 복지향상에 대한 지원 정책에 찬성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집단이다. 따라서 ‘반농촌성지향형’과 ‘비판적 농촌성 지향형’의 도시민에게는 전통적인 농촌사회가 현대적인 전원·휴식공간으로 변화되어 성공한 농촌사회가 된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적절하고 효과적인 농촌지역개발정책을 통해 농촌이 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80년대 이후에 학업을 위해 농촌을 떠나 도시의 화이트칼라로 정착한 계층이 가장 부정적인 농촌성을 가졌다는 사실은, 1980년대 이후의 도농 간의 격차가 커지고, 수입 개방 등으로 인해 국내 농업기반이 붕괴된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이와 함께 도시자본과 도시확장에 따른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 등으로

인해 농촌이 가지는 환경의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파괴된 현실과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1960년대와 1970대에 유행했던 지역사회 쇠퇴이론(Molotch, 1976; Stein, 1960; Warren, 1978)에 의하면 농촌지역 외부의 도시자본 투자에 의한 농촌개발의 주요 이익은 대부분 값싼 농지를 구매하고, 지역주민에게는 거의 편익을 제공하지 않는 편의시설을 건축하는 외부투자자의 몫이었다. 또 도시자본의 농촌 지역자원 소유와 농촌지역 외부의 정책담당자들에 의한 일방적인 지역개발의사결정으로 인해 농촌지역사회는 의존도와 저발전이 심화되었다 (Howes & Markusen, 1981). 국내의 경우도 1980년대 이후 대도시의 급격한 확장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도시편입과 난개발, 그리고 토지 투기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부정적 농촌성 지향형’ 도시민이 긍정적인 농촌성을 갖고 향후농촌개발 정책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촌주민이 주도적으로 농촌개발을 해 나가는 정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투자나 정책담당자에 의한 일방적인 개발이 아니라 농촌주민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효과적이고 집단적으로 해결하도록 농촌주민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정책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적극적 농촌성 지향형’은 보존적 농촌성과 긍정적 농촌성은 높고, 부정적 농촌성은 낮은 도시민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유형은 소득이 높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상대적 많은 도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형은 반농촌성지향 유형과는 정반대의 유형으로 농촌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농촌의 가치를 매우 크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농촌지원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큰 집단이다. ‘소극적 농촌성 지향형’은 보존적 농촌성과 긍정적 농촌성이 보통이고, 부정적 농촌성은 낮은 도시민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유형에는 미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20대의 학생으로 농촌거주 경험이 없고 고향이 대도시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형이 농촌에 대해 특별한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은 이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태어나 농촌경험이 거의 없고 기성세대와는 달리 농촌과 연결되는 관계가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적극적 농촌성 지향형’과 ‘소극적 농촌성 지향형’은 농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위에서 논의한 농촌신비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민의 농촌신비감에 대한 현상은 농촌의 경제, 사회적 재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농촌신비감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이다. 농촌신비감이 시장에서 가지는 잠재력은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농촌을 매개로 한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에 농촌신비감을 이용한 마케팅이 이루어졌으며(Goldman & Dickens, 1983), 일부 지역의 경우는 농촌신비감을 이용해 역사문화유적, 축제, 쇼핑센터 등으로

방문객을 유혹하는 데 성공하였다(Willits & Willits, 1987). 그러나 미국의 경우도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도시민의 이런 인식을 시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Willits, Bealer, & Timbers, 1990; Willits & Willits, 1987). 이런 선진 사례를 볼 때, 농촌재생을 위한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농촌신비감과 같은 도시민의 농촌성 인식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농촌신비감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농촌을 낭만적이고 신비로운 공간으로 인식하는 도시민은 농촌이 갖고 있는 사회, 경제적 문제, 다양성, 농촌경관과 농업의 연결성 등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도시민이 농촌을 휴양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좋은 경관과 문화를 가진 공간으로 여길 때, 이들 도시민은 현재의 자연환경을 변경하는 농촌개발 활동에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선진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농촌지역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관광지 개발, 쇼핑센터 건립 등은 도시에 기반을 둔 환경보호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쳐 왔다(Hays, 1987; Willits & Luloff, 1995). 따라서 농촌신비감이 농촌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농촌환경은 농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농업이 농촌의 자연환경과 문화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농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Cloke & Little, 1997; Milbourne, 1997). 본 연구의 경우에도 농촌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적극적 농촌성 지향형’은 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장(second home), 은퇴지역, 휴양센터 건립 등은 지역 성장을 위한 유용한 농촌개발 전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개발전략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런 유형의 개발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의 이익은 값싼 농지를 구매하고, 저가의 지역 노동력을 사용하는 외부투자자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Molotch, 1976). 또 도시 자본에 의한 지역자원의 소유와 외부투자에 대한 의존의 심화로 지역의 자율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도시민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 개발 시에는 ‘적극적 농촌성 지향형’ 도시민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시자본에 지역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농촌성에 대한 연구(박대식 & 김정호, 1999; 박덕병, 이민수, & 윤유식, 2006; Willits & Luloff, 1995)는 주로 도시민의 농촌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듯이 도시민은 농촌성 차원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농촌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데서 나아가 농촌성을 좀 더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 문헌

- 김종숙, 민상기. 1994.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김정호. 1999.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덕병, 이민수, 윤유식. 2006. “농촌관광 방문객의 농촌성(Rurality) 인지 영향요인.” 호텔관광연구 8(3): 199-212.
- 오세익, 김동원, 박혜진. 2004.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 박혜진. 2007. 「농업·농촌에 대한 200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Baudrillard, J. 1983. *Simulations*. New York: Semotext.
- Bealer, R. C., Willits, F. K., & Kuvlesky, W. P. 1965. “The Meaning of “Rurality” in American Society: Some Implications of Alternative Definitions.” *Rural Sociology* 30(3): 255-266.
- Beus, C. E., & Dunlap, R. E. 1994. “Endorsement of Agrarian Ideology and Adherence to Agricultural Paradigms.” *Rural Sociology* 59(3): 462-484.
- Bierly, P., & Chakrabarti, A. 1996. “Generic Knowledge Strategies in the U.S. Pharmaceutical Indust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7: 123-135.
- Boyne, S., Hall, D., & Gallagher, C. 2000. The Fall and Rise of Peripherality: Tourism and Restructuring on Bute. In F. Brown & D. Hall (Eds.). *Tourism in Peripheral Areas* (pp. 101-113). Clevedon, UK: Channel View Publications.
- Boyne, S., Williams, F., & Hall, D. 2003. “Policy, Support and Promotion for Food-related Tourism Initiatives: A Marketing Approach to Regional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and Tourism Marketing* 14(1): 131-154.
- Buttel, F. H., & Flinn, W. L. 1975. “Sources and consequences of agrarian values in American society.” *Rural Sociology* 43(1): 17-30.
- Carlson, J. E., & McLeod, M. E. 1978. “A comparison of agrarianism in Washington, Idaho, and Wisconsin.” *Rural Sociology* 43: 134-151.
- Cloke, P. 1987. “Rurality and change: Some cautionary notes.” *Journal of Rural Studies* 3(1): 71-76.
- Cloke, P. 1992. The Countryside: Development, Conservation and an Increasing Marketable Commodity. In P. Cloke (Ed.). *Policy and Change in Thatcher's Britain* (pp. 269-295). Oxford, UK: Pergamon Press.
- Cloke, P., & Little, J. 1997. *Contested Countryside Cultures: Otherness, Marginalization and Rurality*. London, UK: Routledge.
- Cloke, P., & Milbourne, P. 1992. “Deprivation and lifestyles in rural Wales. --II. Rurality and the cultural dimension.” *Journal of Rural Studies* 8(4): 359-371.
- Dalecki, M. G., & Coughenour, C. M. 1992. “Agrarianism in American Society.” *Rural Sociology* 57(1): 48-64.
- Falk, W. W., & Gilbert, J. 1985. “Bringing Rural Sociology Back In.” *Rural Sociology* 50(4):

561-577.

Flinn, W. L., & Johns, D. E. 1974. "Agrarianism among Wisconsin farmers." *Rural Sociology* 39: 187-204.

Friedland, W. H. 1982. "The End of Rural Society and the Future of Rural Sociology." *Rural Sociology* 47(4): 589-608.

Friedland, W. H. 2002. "Agriculture and Rurality: Beginning the 'Final Separation'?" *Rural Sociology* 67(3): 350-371.

Goldman, R., & Dickens, D. R. 1983. "The selling of rural America." *Rural Sociology* 48: 585-606.

Grefe, X. 1994. "Is Rural Tourism a Lever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1): 23-40.

Haartsen, T., Groote, P., & Huigen, P. P. P. 2003. "Measuring age differentials in representations of rurality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Rural Studies* 19(2): 245-252.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5. *Multivariate Date Analysis* (6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 Hall.

Halfacree, K. H. 1993. "Locality and social representation: Space, discourse and alternative definitions of the rural." *Journal of Rural Studies* 9(1): 23-37.

Halfacree, K. H. 1995. "Talking about rurality: Social representations of the rural as expressed by residents of six English parishes." *Journal of Rural Studies* 11(1): 1-20.

Hays, S. P. 1987. *Beauty, Health and Permanence: Environmental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wes, C., & Markusen, A. R. 1981. Poverty: a regional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In A. Hawley & s. Mazie (Eds.). *Nonmetropolitan America in Transition* (pp. 437-463).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Jones, O. 1995. "Lay discourses of the rural: Developments and implications for rural studies." *Journal of Rural Studies* 11(1): 35-49.

Kneafsey, M. 1998. "Tourism and Place Identity: A Case-Study in Rural Ireland." *Irish Geography* 31(2): 111-123.

Kohavi, R. 1995. "A study of cross-validation and bootstrap for accuracy estimation and model selection." *IJCAI*: 1137-1143.

Larson, O. F. 1978. Values and Beliefs of Rural People. In T. R. Ford (Ed.). *Rural U.S.A.: Persistence and Change*.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Marsden, T., Murdoch, J., Lowe, P., Munton, R., & Flynn, A. 1993. "Constructing the Countryside." *London, UK*: UCL Press.

Matthews, H., Taylor, M., Sherwood, K., Tucker, F., & Melanie, L. 2000. "Growing-up in the countryside: children and the rural idyll." *Journal of Rural Studies* 16(2): 141-153.

McCarthy, E., & Perreault, W. 1982. *Essentials of Marketing*. Chicago: Irwin.

- McCormack, J. 2002. "Children's understandings of rurality: explor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Journal of Rural Studies* 18(2): 193-207.
- Milbourne, P. 1997. "Revealing Rural 'Others': Representation, Power and Identity in the British Countryside." *London, UK: Pinter.*
- Molotch, H. 1976. "The city as a growth machine: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pla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 309-332.
- Mormont, M. 1987. "Rural Nature and Urban Natures." *Sociologia Ruralis* 27(1): 3-20.
- Mormont, M. 1990. Who is Rural? or How to be Rural? In T. Marsden, P. Lowe & S. Whatmore (Eds.). *Rural Restructuring: Global Processes and Their Responses*. London, UK: Fulton Publishers.
- Newby, H. 1980. "Rural Sociology." *Current Sociology* 28(1): 1-141.
- Newby, H. 1986. *Country Life* London, UK: Weidenfeld and Nicholson.
- Page, S. J., & Getz, D. 1997. *The Business of Rural Tourism: International Perspectives*. London, UK: International Thompson Business Press.
- Pahl, R. R. 1966. "The Rural-Urban Continuum." *Sociologia Ruralis* 6(2): 299-327.
- Phillips, M., Fish, R., & Agg, J. 2001. "Putting together ruralities: towards a symbolic analysis of rurality in the British mass media." *Journal of Rural Studies* 17(1): 1-27.
- Pratt, A. C. 1996. "Discourses of rurality: Loose talk or social struggle?" *Journal of Rural Studies* 12(1): 69-78.
- Ray, C. 1998. "Culture, Intellectual Property and Territorial Rural Development." *Sociologia Ruralis* 38(1): 3-20.
- Richardson, T. 2000. "Discourses of Rurality in EU Spatial Policy: The European Spatial Development Perspective." *Sociologia Ruralis* 40(1): 53-71.
- Robertson, M. E. 2000. "Young People Speak about the Landscape." *Geography* 85(1): 24-36.
- Sharpley, R., & Sharpley, R. 1997. *Rural tourism: An introduction*. London: International Business Press.
- Shucksmith, M. 1994. "Conceptualizing Rurality." *Paper Presented at the University of Guelph, Guelph, Canada.*
- Stein, M. R. 1960. *The Eclipse of Community: An Interpretation of American Stud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one, M. 1974. "Cross-validatory choice and assessment of statistical predictions." *J. R. Stat. Soc. B* 36: 111-147.
- Vapnik, V. N. 1998. *Statistical Learning Theory*. New York: Wiley.
- Warren, R. L. 1978. *The Community in America*. Chicago: Rand McNally.
- Weinstein, A. 1987. *Market Segmentation: Using Demographics, Psychographics and Other Segmentation Techniques to Uncover and Exploit New Markets*. Chicago: Probes.
- Willits, F. K., Bealer, R. C., & Timbers, V. L. 1990. "Popular Images of 'Rurality': Data from

- a Pennsylvania Survey.” *Rural Sociology* 55(4): 559-578.
- Willits, F. K., & Luloff, A. E. 1995. “Urban Residents’ Views of Rurality and Contacts with Rural Places.” *Rural Sociology* 60(3): 454-466.
- Willits, F. K., Robert, C. B., & Crider, D. M. 1982. Persistence of Rural/Urban Differences. In D. A. Dillman & D. J. Hobbs (Eds.). *Rural Society in the U.S.A.: Issues for 1980’s*. Boulder, CO: Westview Press.
- Willits, F. K., Robert, C. B., & Tombers, V. L. 1992. *The Rural Mystique: Some Implications for Rural Development*: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Willits, F. K., & Willits, W. L. 1987. Rural recreation patterns. In A. R. Graefe & P. S. (Eds.). *Recreation and Leisure: An Introductory Handbook* (pp. 209-213). PA: Venture.

원고 접수일: 2007년 1월 29일
원고 심사일: 2007년 2월 20일
심사 완료일: 2007년 6월 15일